

젊은 작가 6인의 '예술 거울'로 비춘 세계 ... 낯설지만 현실적

June 14, 2025 | 김윤택 기자

[Click to read the full article](#)

A18

Culture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매일경제

젊은 작가 6인의 '예술 거울'로 비춘 세계 ... 낯설지만 현실적

국제갤러리 'Next Painting: As We Are'展

회화는 본질적으로 왜곡되는 드라마가 아닐까. 현실의 이미지가 캔버스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저 이미지를 감상자가 응시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화를 두면의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비틀린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왜곡에 따른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이 되고 해설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들이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 과정에서 감상자는 다시 현실을 더 꿰뚫어보게 된다.

현재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 K1·K3에서 개최 중인 그룹전 'Next Painting: As We Are'는 현실과 반(反)현실의 관계를 치밀하게 사유하는 전시다. 이성희 큐레이터가 기획한 이번 그룹전은 6인의 젊은 작가들, 그의 전언에 따르면 '회화 이후의 회화'를 모색하는 1980~1990년대생 작가들의 신작이 소개됐다.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 6인의 그룹전을 전혀 살펴봤다.

먼저 유신에 작가의 캔버스 3점이 눈에 띈다. K1

'회화 이후의 회화' 치열하게 모색

1980~90년대생 작가들 작품 선별

광야속 파친코·침대위 뱀과 허물...

독특한 시선으로 현실세계 꿰뚫어

한쪽 벽면에 나란히 선 작품들. 왼쪽부터 'A Large Organization of Humans Will Always Find a Way to Suck' 'Innovation in Exploitation' 'Fishing Fantasy'가 걸려 있다. 이들 작품은 천동과 먹구름, 푸른 들, 거대한 광야를 배경으로 수직으로 우뚝한 기계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일련 파친코 기계를 연상시키는데, 자세히 보면 여성들의 왜곡된 신체가 배치되어 있다.

법판과 불탑 사이에서, 파친코 기계는 자본주의 사회 속 실존에의 갈등을 가장 기계적으로 은유한다. 흔히 보이는 파친코 기계와의 확률(은) 대결에서 승리하면 거 드넓은 자연 속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역설이 작품에 서명되어 있다. 이 유쾌터는 '자본에 대한 숙독적인 갈등과 구원의 길'만 따라가는 메시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고정패턴의 양식을 차용한 점이 유신에 작가 세 작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와 작가의 회화는 각 작품이 하나의 거대한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다. 그의 작품 'Room Tone' 그 밤이 허물을 뒤흔들었다는 점에 위에 등을 겨냥한 연인이 등장하는데, 이들 주변엔 기괴한 형태의 뱀과 허물어 놓았다. 침대 주변의 허물 두상도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전시장 한쪽 벽면을 꽂은 작품들에서 사람 머리카락도 거대한 꽃잎, 벽에 걸린 새, 인간의 두 눈알을 쳐다보는 세 여성 등이 등장해 모두 비현실적이다. 현장에서 만난 고은이 작가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고, 제 안에서 발생하는 이미지들을 집요하게 끌어내면서 장면들을 구성했다. 실제 이미지를 둘러싼 불안과 긴장의 내러티브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여섯 작가의 작품은 다양한 작가들보다 더 자연적이다. 'Bruised Eyes'는 아른 작가 본인의 멍든 눈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조기의 작품은 멍든 점자 푸른색으로 변화하는데, 작가는 자신의 신



■ 유신에 'Innovation in Exploitation'
■ 김윤택 'Room Tone'...그 행이 허물을 뒤흔들었다
■ 전영우 '무제'
■ 김세은 '도르스의 안쪽 얼굴'

체를 들여다보면 두 장면을 상하로 대비시켰다. 고독스러운 경험을 호소하는 대신,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그저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 독특하다. 인간은 고통에 취약하지만 아픔을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를 기반으로 체다보게 만든다.

정이지 작가는 풍경, 사물, 인물을 먼저 스냅샷으로 찍은 뒤, 이를 다시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을 추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폭 4.6m짜리 'It's Tomorrow'가 눈에 띄는데, 동해의 거대한 연을 찍은 뒤 일출의 환위를 담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초현실 작품이면에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는데 바로 'Secoo 1-3'이다. 한 여성의 눈을 물로 스캔한 뒤 이를 세로 방향으로 나열한 작품들인데, 똑같은 구조임에도 빛의 조도나 빛의 굵기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동일한 구성의 작품들이 하나의 벽면에 나란히 보이게 하는 사람은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전영우 작가는 일상 혹은 여행지에서 만난 순간적인 풍경을 캔버스 안에 위치시킨다. 파친, 뱀, 침대 등 여행지에서 본 조각이나 풍경이 그의 붓끝에서 재현된다. '무제'는 부엌에만 두 사람의 서로 상이 허공에 전시된 모습을 그렸다. 전시장에만 한 전영우 작가는 "회화는 하나의 정지다. 대다수의 장이 내부와 바깥세상을 연결해 준다면 한 발의 어두운 장은 반사된 자신을 비춘다"며 "마지막으로 지의 회화 역시 때로는 지나간 현실 너머의 세계를 감각하는 창. 때로는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고 자신의 작품관을 내비쳤다.

김세은 작가는 시간에 따라 인위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하나의 캔버스에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Ten Years'는 한 공간의 변화를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도로, 나무, 건물 등이 어떻게 바뀌고 다시 다시 구상되는 과정을 한눈에 조망하게 했다. 그의 또 다른 작품 '도르스의 안쪽 얼굴'도 캔버스에 보이는 이미지와 이면의 장면을 상상하게 만든다.

전시는 7월 20일까지.

김윤택 기자

"복수에 목숨 건 인간의 처절함... 대사없이 눈빛으로 담아냈죠"

넷플릭스 드라마 '광장' 기준역 소지섭

누아르 늘 기습여우
봉쇄한 복수극 광장
변화가 즐거워지길

"기준은 눈빛과 액션으로 말하는 인물이에요. 극이 진행될수록 처절해지는 감정을 눈으로 전달하는데 정말했습니다."

넷플릭스 누아르 액션 드라마 '광장'(연출 최성민)의 주인공 배우 소지섭이 지난 12월 서울 종로구 삼정동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주인공 기준 역을 연기하며 감정을 투사했음을 설명했다.

"광장"은 동생 기적(이준혁)을 구하기 위해 11년 전 스스로 아킬레스건을 자른 전설적 조직원 기준 역의 감성적 소지섭은 복수에 복수하기 위해 돌아와 펼쳐지는 이야기로 그려진다. 압도적 무력을 가진 인물에 주먹과 칼, 야구방망이 등 다양한 무기로 폭력배와 걸려, 격투기 챔피언 등을 무자비하게 때려눕힌다.

소지섭은 기준의 감정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복수를 위해 목욕하

전하는 기준은 대사가 적고 액션으로 작품을 채워 눈빛과 행동으로 감정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발인 일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까지 장면이 진행되는데 어찌저는 기준의 감정을 눈빛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액션뿐만 아니라 격투 장면 촬영에도 힘을 기울였다. 평소와 달리 트레이닝을, 복싱 등 주권의 운동을 하는 소지섭은 기준과 어울리는 몸을 만들기 위해 20여 kg을 감량했다.

그는 "기준은 (아킬레스건이 잘린) 한팔이 있는 인물이라서 빠르기는 느리고 예민하고 예민하게는 액션을 보여줘야 했다"며 "점점 생 상대를 상대하는 액션 중간에 뜨는 장면이 생기거나 지루해지지 않게 패션을 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가장 곁들인 장면은 4회에서 복수 야구 배트를 사용에 수심 병과 대결한 부분이다. 소지섭은 큰크리

트먼트로 인제택의 높은 층에서 지령을 이용한 무자비한 액션을 선보인다고. 그는 "이 장면 액션이 작품의 클라이맥스고, 이후의 액션은 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다"며 "광"은 매우 몰입이 되길 원했다"고 말했다.

소지섭은 '광장'의 대역으로 단순하고 통쾌한 서사를 즐겼다. 감독 유주가 명쾌하고 직관적으로 내 용이 전개되 면하게 줄 수 있는 액션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극이 너무 특별한 생각 없이 편하게 배우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지섭은 누아르 장르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영화 '영화는 영화다'(2008), '회사원'(2012) 등을 통해 밀트그레피를 좋아 자신이 있고, 가장 사랑하는 장르는 설명이다. 그는 "누아르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뜨거워진다. 배우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도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윤택 기자



(왼쪽부터)